

1. 빅데이터 플랫폼 및 네트워크 구축 / NIA**사전질의 및 답변****Q1. 올해 구축하는 30개 센터는 16개 분야별 빅데이터 플랫폼을 선택하여 데이터를 연계·유통해야 하는지?**

- 올해 구축하는 30개 빅데이터 센터는 16개 빅데이터 플랫폼 중 1개 이상 플랫폼과 연계하여 데이터를 유통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빅데이터 센터는 활용 수요가 높고 분야별 핵심 데이터를 생산할 역량이 있는 기관·기업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현장질의 및 답변**Q1. 가명정보 결합지원은 어떤 항목을 지원하는 것인지?**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라 기업과 기관의 안전한 가명정보 결합과 활용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며, 가명정보 결합에 필요한 사전 컨설팅, 법률 자문,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을 통해 결합, 활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단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온라인질의 및 답변**Q1.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업의 공모자격은 어떻게 되는가?**

- 빅데이터 플랫폼은 분야별 데이터를 수집·분석·유통·활용하고 센터는 데이터를 생산·관리하여 플랫폼과의 연계를 통한 유기적 협력네트워크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업의 공모자격은 플랫폼이나 센터의 역할이 가능한 기업 또는 기관(지자체, 공공기관 등 포함)에서 참여가 가능합니다.

* '21년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사업 공모는 빅데이터 센터 30개를 공모

Q2. 기존 16개 빅데이터 플랫폼 사업을 지속하면서 신규로 14개 빅데이터 사업을 신청·접수 받는 것인지? 아니면 기존 16개 사업과 별개로 30개 빅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는 것인지?

- 올해 구축하는 30개 빅데이터 센터는 16개 빅데이터 플랫폼 중 1개 이상 플랫폼과 연계하여 데이터를 유통하는 센터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2. 지능정보산업 인프라 조성(AI 학습용 데이터) / NIA

사전질의 및 답변

Q1. 올해 구축하는 종수는 150종인데, 언제까지 얼마나 더 구축 할 계획인지?

-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는 '25년까지 계속 구축할 예정이며, 올해는 150종, '22년에는 400종, '23~'25년은 200종씩 구축할 계획이나, 내외적인 상황에 따라 종수 변경이 가능합니다.

Q2. 구축 이후의 활용도를 위해서는 품질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은데, 작년과 달라진 점이 있는지?

- 작년에 분야별 공통기준과 품질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습니다. 구축사업자가 데이터를 수집하고 가공하는 전 단계에 이르는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여 현장에서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데이터 품질을 제고시킬 예정입니다.

온라인질의 및 답변

Q1. 학습데이터 사업공고는 언제 나오는지?

- 사전공고('21.2.15), 본 공고는 2월 22일부터 30일간 시행될 예정이며, 상황에 따라 일정은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Q2.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 및 대학에 AI 허브를 통해 GPU 자원을 지원해주는 건지?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에 참여한 기업·기관 및 대학 등을 대상으로 GPU 자원을 지원해주지는 않습니다.
- GPU 자원을 지원하는 사업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에서 추진하는 '고성능 컴퓨팅 파워 지원' 사업에서 별도의 신청 및 선정 절차를 통해 지원이 가능합니다.
 - * 신청기간 동안에는 NIA에서 운영하는 AI허브(www.aihub.or.kr) 내 'AI컴퓨팅/바우처' 메뉴에서 신청 연계 가능

Q3. 2020년에 구축된 AI 학습용 데이터사업에서 동일분야에 대한 후속 지원사업 계획은 있는지?

- '21년 사업으로는 '20년 기추진된 동일 과제에 대한 후속 지원사업 계획이 없습니다.

Q4. 과제수행관리 관련 사업비 1억당 최소 2.4억 이상의 인력을 신규 채용 해야하는데, 예를 들어 과제참여 시 18억을 지원받아서 주관사 10억 참여사 8억으로 나뉘면 참여사에서 18억에 대한 인력채용을 전부 해도 되는지? 아니면 주관사 10억, 참여사 8억 따로 인력을 채용해야 되는지?

- 질문하신 내용에서 1억당 최소 2.4억 이상의 인력이 아니라 1억당 최소 2.4명 이상의 신규 인력 채용으로 수정이 필요합니다.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에서 사업 공모 시 제안하는 내용임에 따라, 과제에 참여하는 주관사 및 참여사 간 협의를 통해 예산 비율과 무관하게 컨소시엄 전체에 할당된 신규 채용인력 목표를 달성하면 가능합니다.

Q5. AI 학습용 데이터 부분에서 약 150개 지정공모 과제 중에서 한 과제에 참여시 20년에는 그룹(팀: 컨소시엄)으로 반드시 참여하게 되어 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과제에 한 업체가 단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건지?

- '21년도 사업의 경우에도 최소 2개 이상의 기업·기관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참여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한 개 기업·기관의 단독 참여는 불가합니다.

Q6. 클라우드소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에서 클라우드 워커의 교육 프로그램 제공을 병행함에 따라, 총 예산(2925억) 중 이에 해당하는 예산은 얼마이고, 어떻게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것인지?

- 데이터라벨러 교육 부분의 예산은 약 5억 정도 배정할 계획이며, 교육프로그램은 클라우드소싱에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하고 개별 역량에 따라 편차가 큰 점을 고려하여 단계별(초급, 중급, 고급)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추후 공개할 예정입니다.

3. DB산업 육성(데이터 활용 및 사업화 지원) / K-DATA

4. 차세대 인터넷 비즈니스 경쟁력 강화(데이터 바우처 지원) / K-DATA

사전질의 및 답변

Q1. 데이터바우처 종류는 어떻게 되는가?

- 구매 바우처는 기업이 필요한 유료 데이터 상품 구매비용을 지원하고, 가공 바우처는 기업 맞춤형 데이터 처리에 필요한 가공비용을 지원합니다.
- 가공 바우처는 수요기업의 활용 목적별로 데이터 전처리, 시각화 등 일반적인 빅데이터 분석을 위한 '일반가공'과 AI 개발을 위한 학습용 데이터셋 구축을 위한 'AI 가공'으로 구분됩니다.

현장질의 및 답변

Q1. 데이터바우처 지원방법은 무엇인가?

- 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해 K-DATA에서 지정한 공급기업 중 필요한 데이터 상품 또는 서비스를 선택하여 데이터 바우처를 지원합니다.
- 데이터바우처 지원 전, 신청하고자 하는 상품·서비스 공급기업과 해당 상품 및 서비스명, 납품기한, 제공방식 등 구체적인 사항을 협의하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 혁신아이디어는 있으나 데이터·AI활용 경험이 부족한 기업에게는 K-DATA에서 맞춤형 매칭지원을 공모기간 내 추진할 예정입니다.

Q2. 데이터바우처 지원 목적 및 성과는 무엇인지?

- 혁신 주체인 중소·스타트업 등이 데이터 활용을 통해 비즈니스 혁신 및 신서비스·제품을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전 산업의 디지털 경제 가속화에 기여하기 위해 데이터 바우처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농림부 등 13개 부처 간 협력을 통해 다양한 산업별 수요를 발굴하고 비(非)ICT분야 기업의 데이터·AI 기반 혁신 서비스 창출 및 유통·활용 생태계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 그 예로, '스마트팜'의 경우 농작업 데이터를 수집·분석하여 농작물 재배 시 낭비 요인을 줄여 생산원가 20% 감소 및 생산량 15%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그린뉴딜'의 경우 코로나로 늘어난 폐기물 처리 관련, AI 학습 데이터로 폐기물 인식·분류시스템 정확도 향상 및 작업효율 150% 증대 등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5. 5G 융합서비스 발굴 및 공공선도 적용 / NIA

현장질의 및 답변

Q1. 인프라 구축 관련해서는 대규모 통신사업자와만 진행이 되는지? 중소기업이 참여 가능한지?

- 과제를 대규모 실증과제와 소규모 실증과제 2가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프라 구축도 대규모 실증과제의 일환으로 포함되어있는 항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통사를 중심으로 하되 중소벤처기업들이 다 참여가 가능하도록 개방되어 있습니다.

온라인질의 및 답변

Q1. 5G 특화망을 추진하는 사업자도 5G 융합서비스 모델 발굴에 참여 가능한지?

- 특정사업자의 참여 제한은 없으며, 공모과제 성격에 따라 참여요건상의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제안 가능함.

Q2. 과기정통부에서 5G 특화망과 개별기업 로컬 5G 활성화 계획에 대한 세부내용은 어떻게 되는지?

- 본 사업은 특화망을 위해 주도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며, 5G 인프라 촉진 및 MEC기반 5G 공공서비스 레퍼런스 확보가 우선인 사업으로,
 - 개별기업 로컬 5G 활성화 계획은 5세대(5G) 특화망 정책방안 수립 보도자료(2021.1.2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06-1. VR·AR콘텐츠산업육성 - XR플래그십 프로젝트 / NIPA

사전질의 및 답변

Q1. 21년 XR플래그십 프로젝트 신규로 지원되는 4개 과제(건설, 조선, 소방, 국방)는 단년 지원 종료 과제인가요?

- 올해 신규로 지원되는 4개 과제의 경우 연차별 단계 평가를 통해 '21~'23년 3개년 지원을 계획 중이나, 해당 과제 공고 시 변동될 수 있습니다. ('21년 방송통신발전기금운용·관리규정을 적용하며, 현재 해당 규정은 개정 중으로 자세한 내용은 공고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06-2. VR·AR콘텐츠산업육성 - 5G콘텐츠 플래그십 프로젝트

현장질의 및 답변

Q1. 필수로 상용화가 되어야 하는지?

- VR·AR 콘텐츠산업육성 사업은 비(非)R&D사업으로 상용화 필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Q2. 프로젝트와 관련한 기술을 구매하여 적용해도 가능한지?

- 프로젝트와 관련된 기술을 직접 개발하여 상용화도 가능하나, 목적 및 일정에 따라 관련 기술, 상용SW를 도입하여 개발도 가능합니다. (단, 사전 개발된 내용과 과제에서 개발되는 내용이 구분되어야 합니다.)

7. 생활밀착분야 비대면 선도 / NIPA

Q1. 사업 대상기관(지자체, 통신사 등)이 어디인지?

- 활성화 사업은 일단 수요기관과 공급기관 간의 컨소시엄을 기반으로 해서 수요연계형으로 추진될 일정
- 공급처인 경우에는 지정분야의 경우에는 중견·중소기업들이 참여 가능하고, 지정과제 7개 분야*를 제외한 자유 공모 분야의 중소기업만 참여 가능
 - * ①비대면평가, ②감염병 대응 안심터치, ③스마트 멘탈케어, ④감염병 대응 로봇, ⑤생활플랫폼 서비스 고도화, ⑥여가/홈트레이닝 플랫폼, ⑦라스트 마일 로봇 배송
- 그 대신 수요처에 대한 부분은 대기업, 교육기관, 병원, 공공기관 등 다양하게 폭을 넓혀놔서 자유참여가 가능하도록 사업을 기획

8. 인공지능 융합 프로젝트(AI+X) / NIPA

사전질의 및 답변

Q1. 사업 공고 일자 및 확인 방법

- NIPA 홈페이지 사업공고란에 2월 3일부터 게시 예정
- 공고 대상 6개 사업 중 4개 사업은 2월 3일 공고하고 2개 사업은 2월 10일 공고 예정
 - * (1월 29일 공고 사업) 지뢰탐지, 국민안전, 지역특화산업, 에너지 효율화
 - * (2월 10일 공고 사업) 의료영상 진료판독(요양급여 자동심사 지원), 신규 감염병(역학조사 등 지원)

Q2. 사업 지원 규모 및 지원 내용

- 6개 사업에서 총 17개 과제를 지원하며 예산규모는 총 262.4억원 이내
- (지원대상) 인공지능 솔루션 개발 및 실증 등이 가능한 중소·중견기업
- (지원내용) 인공지능 솔루션 개발 및 실증 등에 필요한 인건비 등
 - * 정부출연금은 총사업비의 80% 이내 지원 예정

구분	공모 과제	지원규모	예산('21년)
인공지능 융합 프로젝트 (AI+X)	• (주요내용) 인공지능 기반 의료심사지원 등 인공지능 개발·실증 * 사업 : ①지뢰탐지, ②국민안전, ③에너지 효율화, ④지역특화산업, ⑤의료영상 진료판독, ⑥신규 감염병 대응 • (지원대상) 인공지능 솔루션 개발, 실증 등 가능한 중소·중견기업 등(컨소시엄)	17개	총 262.4억원 이내

사업명	지원 규모
AI융합 지뢰탐지 시스템	• 총 18.4억원 이내 / 2개 컨소시엄
AI융합 국민안전 확보 및 신속대응 지원	• 총 30억원 이내 / 5개 컨소시엄
AI융합 에너지 효율화	• 총 64억원 이내 / 5개 컨소시엄
AI융합 지역특화산업 지원	• 총 90억원 이내 / 2개 컨소시엄
AI융합 의료영상 진료판독시스템	• 총 12억원 이내 / 2개 컨소시엄
AI융합 신규 감염병 대응시스템	• 총 48억원 이내 / 1개 컨소시엄

온라인질의 및 답변

Q1. AI+X 추진과제 중 에너지효율화¹⁾는 그린뉴딜에 있는 에너지효율화와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 (AI융합 에너지 효율화 사업 개요) 국가산업단지 공장 대상, 에너지 데이터를 기반으로 인공지능을 융합하여 공장 에너지 효율화 실현 및 인공지능 전문기업 육성
- ('20) 공장 에너지 데이터 수집·가공 → ('21~'23) 에너지 데이터 기반 인공지능 알고리즘 개발 및 솔루션 실증·적용
- (「그린뉴딜」中, 스마트그린산단 과제 개요) ICT기반(IoT 등) 공장 에너지 발전·소비를 실시간 모니터링(FEMS) 등 스마트에너지 플랫폼 구축 및 폐기물 재사용(재생 에너지) 등 추진
- (차이점) AI융합 에너지 효율화는 FEMS 도입 공장에서 생산되는 에너지 데이터에 인공지능 기술을 결합하여 공장의 소비·설비 최적화

1) AI 산업본부 AIoT산업팀 김경식 수석(043-931-5713 / kskim@nipa.kr)

그린뉴딜	AI+X(에너지 효율화 사업)
- FEMS 보급, 스마트 에너지 플랫폼 및 전력망 통합관제센터 운영 등 - 신재생 에너지(태양광, 풍력 등), 전기 모빌리티 등 인프라 구축 지원	- FEMS 도입 공장의 에너지 데이터 기반 인공지능 알고리즘 개발 및 솔루션 실증 - 인공지능 에너지 학습 데이터 활성화 지원

Q2. 국방데이터 관련 사업 관련 자세한 내용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지?

- NIPA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2월 3일 예정)

붙임

21년 AI+X 사업별 지원내용

사 업 명		사업 내용	공고일
인공 지능 융합 프로 젝트	AI융합 지뢰탐지 시스템	· (주요내용)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매설지역(DMZ 등)의 지뢰탐지·제거 등을 위한 솔루션 개발 지원 · (지원대상) AI 솔루션 개발 등이 가능한 중소중견기업 등 · (지원규모) 총 18.4억원 이내 (2개 컨소시엄)	'21.2.03
	AI융합 국민안전 확보 및 신속대응 지원	· (주요내용) 인공지능 기반 미아 등 영상검색 및 이동 경로 추적 솔루션 개발 지원 · (지원대상) AI 솔루션 개발 등이 가능한 중소중견기업 등 · (지원규모) 총 30억원 이내 (5개 컨소시엄)	
	AI융합 에너지 효율화	· (주요내용) 산업단지(반월시화, 창원) 수요 기업 대상으로 인공지능 기반 에너지 효율화 솔루션 개발 및 실증 지원 · (지원대상) AI 솔루션 개발 등이 가능한 중소중견기업 등 · (지원규모) 총 64억원 이내 (5개 컨소시엄)	
	AI융합 지역특화산업 지원	· (주요내용) 지역특화산업(충북) 수요 기업 대상으로 설계 지능화, 예지보전 등 인공지능 솔루션 개발 및 실증 지원 · (지원대상) AI 솔루션 개발 등이 가능한 중소중견기업 등 · (지원규모) 총 90억원 이내 (2개 컨소시엄)	
	AI융합 의료영상 진료판독시스템	· (주요내용) 질환영상*을 인공지능으로 판독하여 요양급여 기준항목 자동심사 지원 솔루션 개발 지원 * 요관결석, 어깨관절증, 슬관절염 · (지원대상) AI 솔루션 개발 등이 가능한 중소중견기업 병원 등 · (지원규모) 총 12억원 이내 (2개 컨소시엄)	'21.2.10
	AI융합 신규 감염병 대응시스템	· (주요내용) 인공지능 활용하여 감염병 확산 예측 모델 및 의료자원 관리 시스템 등 개발 지원 · (지원대상) AI 솔루션 개발 등이 가능한 중소중견기업 병원 등 · (지원규모) 총 48억원 이내 (1개 컨소시엄)	

9. 지능정보산업 인프라 조성(AI 바우처) / NIPA

사전질의 및 답변

Q1. 인공지능 솔루션을 현재 개발 중이고 현재까지 납품실적이 없는 기업도 공급기업으로 등록이 가능한가요?

- 인공지능 솔루션 판매 계약서나 매출증빙서류를 제출한 기업외에도 제품 카탈로그나 솔루션 설명서 등 인공지능 솔루션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출 시 전문가 검토 위원회를 통해 등록이 가능합니다.

현장질의 및 답변

Q1. 수요기업의 민간부담금 중 현물부담금은 어떻게 지불하나요?

- 수요기업의 현물출자는 인건비를 의미하며, 급여대장 등 인건비 지출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검토를 통해 지불이 됩니다.

온라인질의 및 답변

Q1. AI 바우처와 데이터바우처 사업 내 AI 서비스 이용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 데이터바우처는 데이터 기반 서비스 개발, 분석 등에 필요한 데이터 구매 또는 가공비 보조에 특화된 사업인 반면 AI 바우처는 인공지능 솔루션 도입을 위한 제반비용 지원 뿐 아니라 솔루션 계약·견적관련 교육, 컨설팅, 투자유치 등 사업화를 위한 종합적 지원내용이 포함됩니다.

10. 블록체인 활용기반 조성 / KISA

사전질의 및 답변

Q1. 블록체인 확산·시범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 한국인터넷진흥원 홈페이지(www.kisa.or.kr) - 알림마당 - 입찰공고-7384 게시글을 참고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네이버TV, 카카오TV, 유튜브 링크로 사업설명회* 참여가 가능합니다.
- * 한국인터넷진흥원 홈페이지 알림마당-공지사항 참고

Q2. 블록체인 시범사업(선도, DID, 특구)에 정부기관, 공공기관 등 비영리 법인의 참여가 가능한가요?

- 정부기관, 공공기관, 비영리 법인 등 모두 참여가 가능하며, 기관 유형에 따라 매칭을 부담하는 기준에 차이가 있습니다.
- 공기업을 제외한 비영리 기관은 필요시 자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자세한 부담 기준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별표 1]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Q3. 특구연계사업이란 무엇인가요? 참여기업의 지역 제한이 있는지요?

- 특구연계사업은 규제자유특구와 연계 가능한 모든 사업을 의미합니다.
- 참여기업의 지역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1개 기업 이상은 특구지역 (부산 해운대구 등) 이전확약서(지사 설립, 사무소 개설 등도 가능)를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11. 양자암호통신 인프라 구축 / NIA

현장질의 및 답변

Q1. 수요기관 선정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니까?

- 자유공모 방식으로 제안사가 해당 분야의 수요기관과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이 필수이며, 제안평가를 통해 제안사 및 수요기관을 선정합니다.

Q2. 성과활용기간 3년의 운영은 필수 입니까?

- 사업 종료 후 수요기관에 구축된 양자암호통신망 및 응용서비스를 3년 동안 필수로 운영해야 하며, 주기적으로 성과활용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온라인질의 및 답변

Q1. 양자암호 인프라 구성 시 서울-수원-판교-대전 mesh형태로 구성되는지, 아니면 트리구조로 4곳중 한곳이 종합 컨트롤러로 구성되는지?

- 2021년 디지털 뉴딜 사업 설명회 자료에 첨부된 서울-수원-판교-대전 구조는 시험·검증을 위한 시험망 구조의 예시입니다.

12. 5G+ 핵심서비스 보안강화(신기술 적용 시범사업) / KISA

현장질의 및 답변

Q1. 신규 공모분야의 경우 어떤 방식으로 선정되는지?

- 저희가 5개 분야를 하다 보니까 4개 분야에 대한 이외의 서비스 선정하여 제안해 주시면, 발표평가를 통해 1개 분야를 선정하고, 후보군에서 최종 점수를 얻은 과제가 선정될 예정입니다.

Q2. 사업 종료 후 1년간 비대면 서비스 유지는 필수인건지?

- 비대면 서비스의 활용·확산을 목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업 종료 후 필수적으로 1년간 서비스를 운영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합니다.

13. ICT 중소기업 정보보호 안전망 확충 / KISA

온라인질의 및 답변

Q1. 중소기업은 어느정도 규모의 회사를 의미하는지?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중소기업 확인서를 제출 가능한 모든 기업을 의미합니다. (다만, 유흥 및 사행산업은 제외됩니다.)

Q2. 컨설팅 제공 주체는 KISA인건지?

- 해당 사업은 조달청 공고를 통해 사업자가 선정될 예정입니다.

Q3. 공급기업의 참여 제한과 모집일정은 어떻게 되는지?

- 참여 요건은 공급기업이 직접 개발하고 제공·판매 중인 제품으로 A/S 가능하여야 하며, 위탁판매자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 모집 일정은 별도로 3~5월 중으로 공지할 예정입니다.

Q4. 보안 솔루션 도입을 위한 컨설팅인지? 보안인증을 받기 위한 컨설팅도 신청이 가능한지?

- 본 사업은 ICT중소기업의 정보보호를 위한 컨설팅 및 보안 솔루션 도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안인증 컨설팅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14. AI 기반 보안기술 개발 기업 육성 / KISA

15. AI 정밀의료 솔루션(닥터앤서2.0) / NIPA

현장질의 및 답변

Q1. 컨소시엄은 어떻게 구성해야 하나요?

- 고품질 의료데이터를 보유한 “의료기관”과 AI 의료 SW 개발을 담당할 “ICT기업” 등이 공동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하면 됩니다.
- (의료기관) 학습데이터의 안정적 제공이 가능하고 고품질의 의료데이터를 보유한 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야 합니다.
 - ※ 단,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의료법인인 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만 가능
 - ※ 개발참여병원 12개 이하(상급종합병원 2개 이상), 임상참여병원은 개발참여병원 2배수 이상(개발참여병원 포함)
 - * (예시) 개발참여병원이 12개인 경우, 임상참여병원은 24개이상(개발참여병원 포함)
- (ICT기업) 질환별 AI 의료 SW 개발* 및 AI학습용 의료데이터 연계·통합 플랫폼 개발 가능한 ICT·SW기업이 필수 참여하여, 병원과 공동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제안하면 됩니다.
 - * 질환별 1개 이상의 ICT기업은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 필수
- 기타 연구기관, 대학 등 비영리기관 등도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Q2. 12개 대상질환 및 24개 SW 제안시 고려할 점은?

- 1·2·3차 병원 및 의료 ICT 기업의 수요를 반영한 13개 질환 후보군을 고려하여 12개 질환을 선정하되, 의료현장에 활용하여 AI 의료 SW의 효과를 검증하고, 의료진의 진료를 지원·보조할 수 있는 질환 및 SW를 선정하여 제안하시면 됩니다.
- (12개 질환 선정) 컨소시엄은 제안시 일부 질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민간 유사·중복성, 개발 우선 수요를 고려하여 개발 필요성 등 타당한 사유를 포함하여 제시하여야 합니다.

- (24개 AI 의료 SW 개발) 예측·분석, 진단, 치료, 예후관리 등 진료 전주기적 관점의 AI 의료 SW 24개 선정시, 민간 유사 중복성, 개발우선수요, 병원내 활용도를 고려하여 제안하시면 되며, 개발된 AI 의료 SW가 한 가지의 의료기기 품목에 집중되지 않도록, 사용 데이터, 사용 목적,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발해야 하고, 사업 기간 내에 개발과 실증, 인허가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 AI 의료 SW 개발 시, 1차 병원의 의견수렴 및 개발된 SW의 1차 병원 실증 방안 제시

온라인질의 및 답변

Q1. 미국, 중국, 일본 등 주요국의 헬스케어 융합 산업 확산과 코로나 장기화에 대비하여 우리나라 헬스케어 산업의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바, 관련 사업 진행 로드맵은 어떻게 되나요?

-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는 닥터앤서 1.0 사업('18~'20년)을 통해 8개 질환 21개 AI 의료 SW 개발 및 검증을 진행하였고, 닥터앤서 2.0 사업('21~'24년)을 통해 12개 질환 24개 AI 의료 SW 개발을 위한 컨소시엄을 공모 중에 있습니다.

Q2. 닥터앤서 2.0 사업에 ICT 기업의 수는 12개를 넘을 수는 없는건지?

- 질환별로 AI알고리즘 개발 역할로 ICT기업이 참여해야 되며, ICT 기업의 수는 제한이 없습니다.

16. 지능정보서비스 확산(5G기반 디지털트윈 공공선도) / NIPA

사전질의 및 답변

Q1. 5G 기반 디지털트윈 공공선도 관련 ‘시설물 안전’ 과 ‘산업육성’ 2개 과제를 공모하신다고 하셨는데, 중복 지원이 가능한지?

- 2개 과제는 별도로 공고하며, 서로 다른 내용을 실증하기 때문에 중복 지원도 가능합니다.
- 시설물 안전관리 실증은 주요 시설물 실시간 안전관리 체계 마련을, 산업육성은 제조·생산시설 운영·안전관리 플랫폼 및 연계 서비스 마련을 목적으로 하기때문에 과제별 실증 서비스의 내용에 차이가 있습니다.

Q2. 디지털트윈 실증 대상 시설물의 기관·기업도 본 과제의 수행 기관으로 참여가 필수인가요?

- 실증 대상 시설물의 소유자(지자체, 기관, 기업 등)는 본 과제의 수행 기관의 참여기관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 실증대상 수요기관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를 위해 참여기관으로 참여해야 하며, 사업비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실증대상 시설물을 현물 기관부담금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 * 세부내용은 2월 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월 3일 공고 예정)

현장질의 및 답변

Q1. 지능정보 서비스 확산 과제는 사업기간이 1월부터인데 2월에 공고가 나는 건가요?

- 1월부터 사업이 시작되며, 2월부터 과제 선정과정에 들어가고 선정된 컨소시엄은 4월부터 12월까지 과제를 수행하게 됩니다.

17-1. 정보통신방송 혁신인재 양성(AI 대학원) / IITP

사전질의 및 답변

Q1. AI 대학원은 R&D 사업인데, 3책5공 적용을 해야 합니까?

- AI대학원은 R&D 사업이나, 인재양성사업으로 구분되어 있음에 따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 2항에 따라 3책5공의 적용이 제외됩니다.

Q2.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어떻게 구성을 해야 합니까?

- 기관부담연구개발비(舊민간부담금)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사업추진 의지와 관계된 것이므로, 주관연구개발기관에서 반드시 출연금의 10%이상을 현금으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 사업에 참여하는 협력기관의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납부는 선택사항이며, 주관기관이 자율적으로 추가하여 사업규모의 확대가 가능합니다.

현장질의 및 답변

Q1. 프로젝트 중심으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AI 프로젝트에 대한 GPU 자원 임차는 어떤식으로 제공되는지? 별도의 공급기업/운영/지원기업을 선정하는지?

- GPU 자원 인프라는 과제 신청 범위 안에서 신청대학이 자율적으로 장비 구축 비용을 반영해서 설치하면 됩니다.
- 운영지원기업은 전담기관에서 따로 선정하지 않고, 과제 선정 완료후 대학별 사업계획서에서 제시한 GPU자원 구축계획에 따라 자율적으로 관련 기관을 대학에서 선정하여 운영하면 됩니다.

18. 정보통신 창의인재양성(SW 중심대학) / IITP

사전질의 및 답변

Q1. 수행기관은 반드시 컨소시엄을 구성 후 참여하여야 하는지요?

- 산업분야 전문 협·단체가 교육사업을 수행하고 있어, 교육사업의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어 AI교육을 직접 수행 가능할시에는 단독 수행도 가능합니다.

Q2. '21년 공모산업분야는 '20년 공모한 분야와 동일한지요?

- '21년 공모분야는 일부 변경이 있을 예정입니다.
 - 본 사업의 지원기간은 최대2년으로 '20년 선정·진행중인 6개 분야 중 지원확정 과제는 '21년에도 지원예정이기때문에 해당 산업분야는 공모에서 제외될 예정입니다.
 - * 20년 지원사업 추진분야(6개 분야) : 물류.유통, 철강(제조), 국방.치안.안전, 반도체, 자동차.이동체, 전자.통신
 - '21년도에는 지원분야를 확대하여 분야가 추가되거나 세분화될 예정으로, '20년 연차평가 결과 및 사업 추진전략 등을 감안하여 2월초에 확정될 계획입니다.

현장질의 및 답변

Q1. 수행기관이 산업별 협·단체라고 되어 있는데, '기업' 이 주관기관이 가능한지요?

- 산업별 협·단체는 '해당 산업분야 발전, 협력, 이익증진, 대변 및 공동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는 기관'을 의미합니다. 본 사업 성격상 재직자(리더과정, 중간관리자 과정 등) 교육의 원활한 진행 및 효과 제고를 위해서는 해당 산업분야 기업들의 수요조사를 시행하고, 기업들에게 공평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야 하기에 중립적이고 비영리 사업을 추진할 주관기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영리)기업은 주관기관으로 참여가 제한되며 참여기관으로 자격으로는 수행이 가능합니다.

기타

온라인질의 및 답변

Q1. 공공데이터 청년인턴 모집은 언제하나요?

- 올해는 4-5월 중 공공데이터 청년인턴십 참여 인턴 모집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Q2. 클라우드플래그십 사업 관련한 설명회는 따로 진행하는지?

- 클라우드 플래그십 사업 설명회는 별도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일정이 확정되면, NIPA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월 9일 예정)

Q3. 작년(2020년) 디지털역량강화 사업도 그대로 진행되는지?

- 교육 제공의 연속성 확보를 위해 '21년도에도 전년동 수준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올해 사업에서는 지난해 구축한 디지털 교육 콘텐츠, 역량진단 척도 등을 활용하여 교육할 예정입니다. 추가로 교육제공 외에 디지털 교육콘텐츠 제작 및 온라인 교육플랫폼 구축 등을 수행할 계획에 있습니다.